

# 주역(周易)의 팔괘(八卦) 상징과 심리치료의 상관성 연구

간괘(艮卦)와 산(山) 그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차현희

한국체육대학교 심리학 강사, 상담학 박사, 상담심리학 전공  
chamari@hanmail.net

I. 머리말

II. 간괘의 상징

III. 산 그림의 상징

IV. 맺음말: 사례 분석의 결론

## I. 머리말

『주역(周易)』은 중국문명권에서 생겨난 비견할 만한 것이 없는 문헌이며, 부호와 문자로 조직된 신비한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경(五經)의 으뜸이며 삼헌(三玄, 『주역』, 『노자』, 『장자』를 일컬음)의 관(冠)으로 존송되어왔고, 우주의 일체 지식을 꿰고 있다고 인식되어왔다.<sup>1)</sup> 이러한 『주역』의 쓰임은 보통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주역이 생겨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주역 점서(占筮)이며, 두 번째는 주역의 글이나 상(象)에 대한 철학적 관조이다.<sup>2)</sup>

심리치료 영역에서 『주역』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은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융(C. G. Jung, 1875-1961)에서부터이다. 융은 『주역』의 첫 번째 쓰임, 즉 점(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에 『주역』이 알려져서 대중적인 확산에 단서가 되었던 것은 융의 친구였던 중국학학자 리하르트 빌헬름(Richard Wilhelm, 1873-1930)의 독어판 주역이고, 이를 영어권에 소개한 것은 융의 여류 제자인 베인즈(Baynes)였다. 그래서 영어판 주역의 「서문」은 융이 쓰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역』이 서구에서 확산되고 유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융은 『주역』을 일관되게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은 자기이해(self-knowledge)에 관한 것이었다.<sup>3)</sup>

『주역』과 점을 연관시켜 이해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상징(symbol) 혹은 기호(sign)이다.<sup>4)</sup> 곧, 『주역』의 상징적 특성으로 인해서 점이 가능했다는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징 사용의 원천이 된 것은 점이였다. 원래 점을 뜻하는 디비네이션(divina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 디비나레(divinare)에서 유래된 말로서, 신에 의해 영감을 받아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의미하였다.<sup>5)</sup>

1) 廖名春 外 지음, 심경호 옮김, 「서문」, 『주역철학사』(예문서원, 1994), 43쪽.

2) 『周易』「繫辭傳上」 2장. “군자는 거처할 때는 주역의 괘상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풀이를 음미하며, 일이 생겨 질문을 구할 때는 그 변화를 살피고 점쳐 나온 내용을 음미한다(君子, 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전자가 철학적 관조이고, 후자는 占筮, 즉 주역점의 활용 내용이다.

3) 이창일, 『주역, 인간의 법칙』(위즈덤하우스, 2011), 336쪽 이하 참조.

4) 기호와 상징은 넓은 의미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거나 혼용되어 쓰인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를 구별하여 상징 기호의 한 종류로 정의하기도 한다(Winfried Nöth, *Handbook of Semiotics*, Indiana Univ. Press, 1995, pp. 116-118 참조). 심리치료에서는 상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점술이건 간에 점치는 사람은 초자연적 존재와 접촉하여 그 권능을 매개로 징조나 징후를 해석함으로써 신의 의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징조나 징후는 신으로부터 전해지는 상징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해석하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었다.<sup>6)</sup> 『주역』 또한 상징적 기호로 구성된 체계로서, 이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심리치료 영역에서 융은 이러한 주역의 상징적 특성을 이용하여,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sup>7)</sup>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의식(意識, consciousness)과 기억할 수 없는 무의식(無意識, unconsciousness)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무의식은 인식할 수 없는 단계로 분류되므로 무의식을 탐색할 때는 주로 심상(image)<sup>8)</sup>을 활용한다. 실제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자유연상과 융의 적극적 명상에서는 임상 장면에서 심상 표현을 실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심상은 그 기본적인 성격이 상징적이다. 따라서 상징이 가리키는 의미를 파악해야 무의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이로부터 인간의 심리를 온전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히 융은 고대로부터 인간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고 생각되는 만다라(曼荼羅, Mandala)<sup>9)</sup> 도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심리치료에 도입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원 그림의 만다라 작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성찰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방식은 더 확증되

- 
- 5) 고대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Cicero, 기원전 106-43)는 『점술에 관하여(De Divinatione)』라는 저술에서 점술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꿈과 같이 비밀상징 상태에서 주어지는 영감을 받아 행해지는 형태의 점술이고, 둘째는 간신점(肝神占, haruspicy), 내장점(內臟占, extispicy), 징후점(徵候占, augury), 점성술, 신탁점(神託占)처럼 어떤 특정한 형태의 해석 테크닉을 사용하는 점술이다. 방인,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예문서원, 2014), 85쪽 참조.
- 6) 방인, 위의 책, 86쪽 참조; 제인 호프(Jane Hope) 지음, 유기천 옮김, 『영혼의 비밀』(문학동네, 2002), 34-35쪽 참조.
- 7) 융(C. G. Jung) 지음, 한국융연구원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인간과 문화』, 『융 기본 저작집』 9책, (술출판사, 2004), 232쪽 참조.
- 8) 심상은 언어인식 이전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형성되며, 깊은 심리상태를 구체적이면서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차마리, 『미술치료의 이해』(BlueLotus출판사, 2012), 4-5쪽 참조.
- 9) 만다라는 우주 전체를 상징한다는 둥근 원 안에 내적 세계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만다라는 내적 안정, 집중, 염원, 소원, 균형, 중심성, 전체성, 자기성장, 자기통합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융(C. G. Jung) 지음,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열린책들, 2009), 326-329쪽 참조; 차현희, 『뇌기능분석을 통한 만다라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뇌파검사와 신경심리검사를 중심으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14쪽, 17-18쪽 참조.

어 인간의 무의식적 상징을 그림이나 조형 작업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에도 열중한다.<sup>10)</sup> 이후 이러한 방식은 인간의 무의식적 상징을 파악하는 융 학파의 치료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역』의 상징이 검토되는데<sup>11)</sup>, 융은 『주역』이 질문을 던지는 자의 심리적 상태가 외부적 사건이나 사물과 상응하는 이른바 동시성적(synchronistic)<sup>12)</sup> 관계에 잘 들어맞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주역』의 점이 심리상태, 즉 내담자의 무의식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융 학파의 진 시노다(Jean Shinoda)는 심리치료의 임상 현장에서 『주역』을 활용하고 검토하면서, 내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상징적 형태로 제시하는 『주역』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성 이론의 실제적 효과성을 긍정하고 있다.<sup>13)</sup>

동시성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논리적 수단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자신과 세계 사이의 어떤 연결이 존재함을 깨닫는다.

10) 분석심리학적 정신치료에서 그림의 의미는 첫째, 그림을 통해 무의식적 내용이 나타난다. 둘째, 그림으로써 감정기능을 살리고 무의식적 창조적 기능이 발휘된다. 그림의 분석방법 관점은 첫째, 형태적·공간적인 측면, 둘째, 색채, 셋째, 그림 내용에 대한 분석이다. 이부영, 『분석심리학』(일조각, 2000), 278-279쪽, 283-285쪽 참조.

11) 1920년대 말, 다름슈타트(Darmstadt)에서 리하르트 빌헬름에게 『주역』을 소개받았다 [디어드리 베어(Deirdre Bair) 지음, 정영목 옮김, 『융』, 열린책들, 2008, 662-663쪽 참조]. 이 밖에도 융은 동양의 티베트에서 기원한 만다라 작업과 더불어 동양의 학문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1929년 빌헬름과 『태을금화종지(太乙金華宗旨)』에 도교경전 번역과 주석에 관한 심리학적 해석을 발간하였으며, 경전에 쓰인 최고의 자각과 해탈의 경지를 증명하듯 서양인의 무의식적 표현인 전일(全一) 만다라상을 제시하였다(이부영, 위의 책, 369쪽 참조).

12) 융은 동시성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① 심리적 상태 혹은 내용과 상응하는 동시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사건과 관찰자의 심리적 상태의 일치, ② 관찰자의 지각 영역 바깥, 곧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일어나고 사후에야 입증이 가능한 상응하는 외부 사건과 심리적 상태의 일치, ③ 아직 현존하지는 않으나 시간상 거리가 있는 미래 사건으로 사후에만 입증할 수 있을 뿐인, 그런 상응하는 사건과 심리적 상태의 일치. 융은 이런 현상들이 원형(archetype)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였다. 융(C. G. Jung)·파울리(W. Pauli) 저, 이창일 옮김, 『자연의 해석과 정신』(청계, 2002), 18-19쪽 참조.

13) 진 시노다는 융 학파의 정신의학자이다. *The Tao of Psychology: Synchronicity and Self*(1979)는 그녀의 처녀작으로써 분석심리학에 입각한 심리치료가 서양의 심리학이 소홀하게 다룬 정신과 물질의 통합인 전일론적 세계관 속에서 심리치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쉽고도 재미있게 저술하고 있다. 특히 분석심리학의 동시성 원리를 좀 더 쉽게 소개하면서, 이를 동양의 주역에 비교하여 저술하고, 임상 장면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동시성 원리는 이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관념적인 영역에서 취급되었는데, 이 저술을 통해서 그것이 일상생활, 특히 심리치료와 상담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매우 중요한 치료적 핵심, 즉 심리학의 도에 속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설득력 있게 예증하고 있다.

『주역』은 이런 연관을 존중한다. 곧 우리는 『주역』에 물음을 구할 때 동시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주역』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은 없지만, 그 방법은 동시성에 의한다. 그리고 『주역』의 글귀들의 기묘하지만 정확한 독해는 정서적 확신을 가져다준다. 『주역』은 내적 가치를 지키라고 강하게 충고하지만, 외적 상황에 적합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자연스러운 동시성 사건들이 활동적이고 정서적으로 충전된 내적 상황들과 공명하고 병행하는 것처럼, 『주역』은 긴장과 집주의 내적 상황이 있을 때 잘 작동한다. 상징적 정신은 현재 상황의 의미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을 줄 수 있다. 만일 어떤 내담자가 분석 회기 중에 『주역』의 점괘를 가지고 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된다. 나는 꿈과 동시성 사건을 다루듯이 그것을 이용했다. 『주역』의 은유적 이미지들이 그 사람의 정신에서 창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덜 개인적이었지만, 그 이미지와 상징들에서 개인적 의미를 찾아 보면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시된 은유들의 연상을 통한 확충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sup>14)</sup>

이처럼 시노다는 『주역』의 괘상(卦象)과 인간의 무의식적 상징체계를 결합한 통합적 관점으로 심리치료에 접근하여, 인간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심리치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주역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동시성의 차원을 탐색하였다. 이뿐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을 풍성하게 이해하고자,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여러 학자들은 임상 장면에서 『주역』 괘상의 상징적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sup>15)</sup>

이 글은 위와 같이 심리치료 분야에서 적용되는 『주역』의 특별한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 인간의 심상이 잘 반영된다는 융 학파의 주장을 반영하여 내담자에게 산 그림을 그리도록 제시하고,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산 그림과 『주역』의 팔괘(八卦) 가운데 산(山)의 자연형상에 해당하는 간괘(艮卦, ≡)의 상징을 비교 검토하여, 그 상징적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역의 상징적 의미가 내담자의 내면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글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산의 자연형상을 상징하고 있는 간괘에 주목하여 『주역』의 경문들 속에서 간괘의 상징 내용을

14) Jean Shinoda, *The Tao of Psychology: Synchronicity and Self*(NY: Harper & Row, 1979), pp. 62-66 참조.

15) 대표적인 사례로 『주역』의 심리치료적 응용은 융 학파의 영향을 받은 아놀드 민델(Arnold Mindell)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주역의 원리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을 몸으로써 자각하는 방식을 해석하려고 응용하였다. 아놀드 민델 지음, 한나 정 옮김, 『꿈꾸는 영혼』(나노미디어, 2006), 72-76쪽 참조.

정리하고, 핵심적 상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내담자의 산 그림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주역』의 간괘 분석과 비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주역』의 심리치료적 응용 가능성을 살피고, 동양사상의 치료적 자원과 심리치료의 통합적 관점에 따른 해석의 확장성 여부를 논의한다.

## II. 간괘의 상징

『주역』을 이루는 기본적인 상징은 팔괘이다. 팔괘 가운데 산의 자연형 상에 해당하는 것이 간괘이다. 간괘는 일양(一陽)이 이음(二陰) 위에 있는 괘형(卦形)으로 괘상(卦象)은 ☵☶으로 표시하고, ‘멈춤(止)’의 덕을 갖추었으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신의 직분을 지켜서 재앙을 면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리(義理)를 나타내기도 한다.<sup>16)</sup> 또한 『주역』의 64괘 중에서 진괘(震卦, ☳)는 ‘움직임(動)’을 뜻하는데, 끝까지 움직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쳐야 할 때가 필요하여 간괘가 이어지고, 이런 이유로 해서 간괘는 ‘그침(止)’을 상징한다.<sup>17)</sup> 또한 간(☵)/진(☳)과 같이 둘의 상징은 하나로 묶이는데, 이를 전도(顛倒) 혹은 반역(反易)이라고 하여 음양의 효(爻)가 반대로 대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움직임과 멈춤의 짝이 된다.

### 1. 간괘의 상징적 의미

『주역』의 간괘에 대한 상징적 이해는 『주역』의 경(經)과 전(傳), 즉 십익(十翼)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팔괘의 상징은 많은 사물이 대응되고

16) 『周易』 艮의 彖辭. “그 등에 그치면 그 몸을 얻지 못하며, 그 뜰에 행하여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여 허물이 없으리라(艮其背, 不獲其身, 行其庭, 不見其人. 无咎).” 程子の 주석에서 드러난다. “사람이 그침을 편안하지 못함은 욕심에 움직이기 때문이니, 욕심이 앞서서 이끄는 상황에서 그치기를 구하면 얻을 수 없으므로, 그치는 도는 마땅히 그 등에 그쳐야 할 것이다(人之所以不能安其止者, 動於欲也, 欲牽於前而求其止, 不可得也, 故艮之道, 當艮其背).”

17) 『周易』 「序卦傳」. “진은 움직이는 것이니, 물건이 끝까지 움직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간괘로써 받는다(震者, 動也, 物不可以終動, 止之, 故受之以艮).”

표1-간괘의 상징 1

건(乾)	태(兌)	리(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	☱	☲	☳	☴	☵	☶	☷
천(天) (하늘)	택(澤) (연못)	화(火) (불)	뇌(雷) (우레)	풍(風) (바람)	수(水) (물)	산(山) (산)	지(地) (땅)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8개의 자연사물이며, 팔괘의 상징적 의미는 표1과 같다.

팔괘는 위에서처럼 건천(乾天), 태택(兌澤), 리화(離火), 진뢰(震雷), 손풍(巽風), 감수(坎水), 간산(艮山), 곤지(坤地)가 있으며, 간괘는 산을 상징한다.<sup>18)</sup>

「설괘전」에서 간괘의 상징을 살펴볼 수 있다. 「설괘전」의 4장은 괘덕(卦德), 즉 괘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괘의 상징은 64괘 384효를 이루는 역사(易辭, 단사와 효사 및 모든 글)를 해석할 때 기본이 되고 있다. 「설괘전」의 4장을 표2와 같이 정리하였다.

우레로써 동하고, 바람으로써 흠고, 비로써 적시고, 해로써 따뜻하게 하고, 艮으로써 그치고, 兌로써 기쁘게 하고, 乾으로써 君主 노릇 하고, 坤으로써 감춘다.<sup>19)</sup>

「설괘전」의 4장에서 간괘는 간이지지(艮以止之)라 하여 “艮으로써 그치고”를 뜻한다. 따라서 간괘의 상징에서 ‘머물고 있음’과 ‘멈춤’의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 또한 「서괘전」에서도 멈춤의 상징을 찾아볼 수 있다.

표2-간괘의 상징 2

팔괘	진(震)	손(巽)	감(坎)	리(離)	간(艮)	태(兌)	건(乾)	곤(坤)
괘상	☳	☴	☵	☲	☶	☱	☰	☷
괘덕	雷의 움직임	風의 흠어짐	雨의 적심	日의 말림	艮의 멈춤	兌의 기뻐함	乾의 주재	坤의 간직함

18) 팔괘와 자연사물의 대응은 『周易』 「說卦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창일, 앞의 책, 357-368쪽 참조.

19) 『周易』 「說卦傳」 4장. “雷以動之, 風以散之, 雨以潤之, 日以烜之, 艮以止之, 兌以說之, 乾以君之, 坤以藏之.”

震은 동함이니, 물건은 끝내 동할 수 없어 멈춘다. 그러므로 艮卦로 받았으니, 艮이 멈춤이다.<sup>20)</sup>

간괘의 '멈춤'이라는 성질은 진행하던 성장을 멈추고 내적으로 기운을 깊이 간직하면서 절도(節度) 있는 성질로 발전하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sup>21)</sup>

「설괘전」의 7장에서는 건곤(乾坤), 진손(震巽), 감리(坎離), 간태(艮兌) 등과 같이 음양이 짝을 이루는 괘상으로 팔괘가 제시되고 있다. 음양의 짝은 괘상을 이루는 음효(陰爻)와 양효(陽爻)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 7장의 내용은 표3과 같이 정리하였다.

乾은 굳셈이요, 坤은 순함이요, 震은 동함이요, 巽은 들어감이요, 坎은 빠짐이요, 離는 걸림이요, 艮은 그침이요, 兌는 기빠함이다.<sup>22)</sup>

「설괘전」의 7장에서는 간, 지야(艮, 止也), 즉 “艮은 그침이요”라고 그 상징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간괘는 역시 ‘그치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는 성리학의 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간괘의 표준적 의미이기도 하다.

艮은 그침이 되니 그침의 道는 오직 때에 맞아야 하니, 가고 멈춤과 動하고 靜함을 때에 맞게 하지 않으면 망령된 것이다. 때를 잃지 않으면 理致에 순하여 義에 합하니, 사물에 있으면 理라 하고 사물에 대처하면 義라 한다. 動과 靜이 理와 義에 합하면 때를 잃지 않은 것이니, 이는 그 道가 光明한 것이다. 君子는 때를 귀히 여기니, 仲尼의 ‘行止久遠’이 이것이다. 艮은 體는 篤實하여 光明한 뜻이 있다.<sup>23)</sup>

표3-간괘의 상징 3

팔괘	건	곤	진	손	감	리	간	태
괘상	☰	☷	☳	☴	☵	☲	☶	☱
괘덕	건(健) 강건함	순(順) 유순함	동(動) 움직임	입(入) 들어감	함(陷) 빠짐	리(麗) 걸림	지(止) 그침	열(說) 기빠함

20) 『周易』 「序卦傳」. “震者, 動也, 物不可以終動, 止之, 故受之以艮, 艮者, 止也.”

21) 이창일, 앞의 책, 367쪽 참조.

22) 『周易』 「說卦傳」 7장. 乾, 健也, 坤, 順也, 震, 動也, 巽, 入也, 坎, 陷也, 離, 麗也, 艮, 止也, 兌, 說也.

23) 『周易』 「象傳」에 대한 程子の 주석. “艮爲止, 止之道, 唯其時, 行止動靜, 不以時則忘也, 不失其時, 則順理而合義, 在物爲理, 處物爲義, 動靜合理義, 不失其時也, 乃其道之光明也, 君子所貴乎時, 仲尼行止久遠, 是也, 艮體篤實, 有光明之義.”



성리학에서는 간의 덕(德)이 가진 멈춤에서부터 행하는 것을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절제할 수 있는 덕성을 발견한다. 또한 멈춤은 행함을 멈춘 게 아니라 행할 때 행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춘다는 상태를 뜻한다.<sup>24)</sup> 그런데 간의 상징은 또한 절(節)의 뜻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역이나 상징을 중시하는 상수역에서도 간의 상징은 공통된 이해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괘전」의 5장은 이른바 「문왕후천팔괘(文王後天八卦)」 방위의 성립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5장의 내용은 표4와 같이 정리하였다.

上帝가 震에서 나와 巽에 깨끗하고 離에서 서로 만나보고 坤에 일을 맡기고, 兌에 기뻐하고, 乾에 싸우고, 坎에 위로하고, 艮에 이룬다.

만물(萬物)이 震에서 나오니, 震은 東方이다. 巽에 깨끗하다는 것은 巽은 東南이니, 齊는 만물이 깨끗함을 말한 것이다. 離는 밝음이니, 만물이 모두 서로 만나보기 때문이니, 南方의 卦이다. 聖인이 南面하여 천하를 다스려서 밝은 곳을 향해 다스림은 여기에서 취한 것이다. 坤은 땅이니, 만물이 모두 기쁨을 이루므로 坤에 일을 맡긴다 한 것이다. 兌는 바로 가을이니, 만물이 기뻐하는 바이므로 兌에 기뻐한다 하였다. 乾에 싸운다는 것은 乾은 西北의 卦이니, 陰·陽이 서로 부딪힘을 말한 것이다. 坎은 물이니, 바로 北方의 卦이니, 위로받는 卦이니, 만물이 돌아가는 바이므로 坎에 위로한다 한 것이다. 艮은 東北의 卦이니, 만물이 終을 이루고 始를 이루는 것이므로

표4-간괘의 상징 4

팔괘	진(震)	손(巽)	리(離)	곤(坤)	태(兌)	건(乾)	감(坎)	간(艮)
괘상	☳	☴	☲	☷	☱	☰	☵	☶
방위	동방	동남방	남방	서남방	서방	서북방	북방	동북방
제(帝)	나옴	가지런함 재계함	서로 만남	힘써 일함	기쁨, 기쁘게 말함	두려움	일함	이름, 말을 이름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오행	목(木)	목(木)	화(火)	토(土)	금(金)	금(金)	수(水)	토(土)

24) 『周易』 「彖傳」에 대한 朱子の 주석. “이것은 괘의 이름을 풀이한 것이다. 간의 뜻은 그치는 것이나, 행하고 그침이 각각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그쳐야 할 때 그치는 것도 그침이고, 행해야 할 때 행하는 것 또한 그침이다. 간의 체는 독실하기 때문에 또한 빛나고 밝은 뜻이 있으니, 대축괘에도 간에 대한 풀이에 또한 빛나는 것으로 말했다(此, 釋卦名, 艮之義則止也, 然行止各有其時, 故時止而止, 止也, 時行而行, 亦止也, 良體篤實, 故又有光明之義, 大畜, 於艮, 亦以輝光言之.)”

艮에 이룬다 한 것이다.<sup>25)</sup>

「설괘전」의 5장에서 간괘는 동북쪽의 방위에 위치하고, 진괘에서부터 순행하여 마지막에 이르는 괘이기 때문에 “만물이 마침을 이루고 시작을 이루는 것”이 된다. 이로부터 종결의 의미이자 완성하다, 마무리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종결은 죽음을 의미하며, 생명이 죽으면 귀신이 되므로 귀신의 뜻도 내재되어 있다. 게다가 귀신이 깃들여 있는 장소는 사당이므로 종묘, 묘, 어두움 등으로도 확충된 해석이 가능하다.<sup>26)</sup>

팔괘를 자연사물에 비기는 것처럼 가족관계의 인사(人事)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가 만나서 가족이 생겨나듯이 주역에도 건과 곤의 괘가 각각 부모가 되어 3개의 ‘아들괘’와 3개의 ‘딸괘’가 생겨난다(그림1 참조). 「설괘전」의 10장에 나타난 상징은 표5와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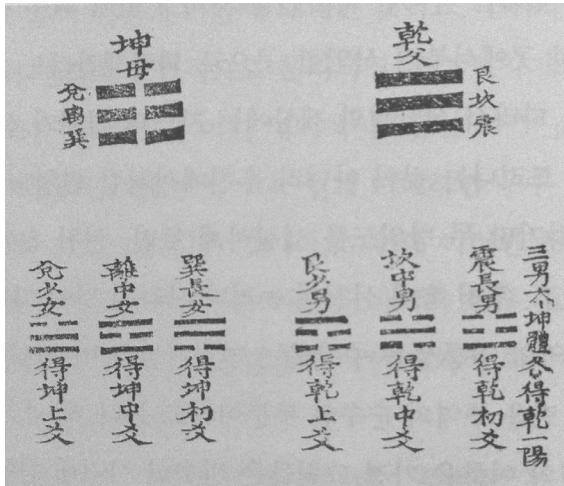


그림1- 후천팔괘차서도(後天八卦次序圖)

25) 『周易』 「說卦傳」 5장. “萬物，出乎震，震，東方也，齊乎巽，巽，東南也，齊也者，言萬物之絜齊也，離也者，明也，萬物，皆相見，南方之卦也，聖人，南面而聽天下，嚮明而治，蓋取諸此也，坤也者，地也，萬物，皆致養焉，故曰致役乎坤，兌，正秋也，萬物之所說也，故曰說言乎兌，戰乎乾，乾，西北之卦也，言陰陽相薄也，坎者，水也，正北方之卦也，勞卦也，萬物之所歸也，故曰勞乎坎，艮，東北之卦也，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故曰成言乎艮.”

26) 이창일, 앞의 책, 76-77쪽 참조.

乾은 하늘이므로 父라 칭하고, 坤은 땅이므로 母라 칭하고, 震은 첫 번째로 구하여 男을 얻었으므로 長男이라 이르고, 巽은 첫 번째로 구하여 女를 얻었으므로 長女라 이르고, 坎은 두 번째로 구하여 男을 얻었으므로 中男이라 이르고, 離는 두 번째로 구하여 女를 얻었으므로 中女라 이르고, 艮은 세 번째로 구하여 男을 얻었으므로 少男이라 이르고, 兌는 세 번째로 구하여 女를 얻었으므로 少女라 이른다.<sup>27)</sup>

표5-간괘의 상징 5

팔괘	건	곤	진	손	감	리	간	태
괘상	☰	☷	☳	☴	☱	☲	☵	☶
가족	父	母	長男	長女	中男	中女	少男	少女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장남)	큰딸 (장녀)	둘째 아들 (중남)	둘째 딸 (중녀)	셋째 아들 (소년)	셋째 딸 (소녀)

「설괘전」의 10장에서 간은 셋째 아들이면서 젊은 남자이고, 어린아이를 뜻한다. 이러한 상징은 64괘에도 적용되어, 몽괘(蒙卦, ☶☵)를 살펴보면, ‘어린아이가 가르침을 구한다’, ‘무지하다’로 설명되어 있다.<sup>28)</sup> ‘어리디’는 ‘어리석다’를 뜻하고, ‘어리석음’은 ‘어둠’을 의미하며, ‘어리석다’는 동몽(童蒙)이라 하여 몽괘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상징은 전통 교육론의 핵심을 나타내기도 한다.<sup>29)</sup>

그 밖에도 「설괘전」의 11장에는 팔괘의 상징들이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간괘에 대한 내용은 표6과 같이 정리하였다.

艮은 산이 되고, 작은 길이 되고, 작은 돌이 되고, 문이 되고, 과일과 풀의 열매가 되고, 內侍가 되고, 손가락이 되고, 개가 되고, 쥐가 되고, 부리가 검은 짐승의 등속이 되며, 나무에 있어서는 단단하고 마디가 많음이 된다.<sup>30)</sup>

27) 『周易』 「說卦傳」 10장. “乾, 天也, 故稱乎父, 坤, 地也, 故稱乎母, 震, 一索而得男, 故謂之長男, 巽, 一索而得女, 故謂之長女, 坎, 再索而得男, 故謂之中男, 離, 再索而得女, 故謂之中女, 艮, 三索而得男, 故謂之少男, 兌, 三索而得女, 故謂之少女.”

28) 『周易』 「序卦傳」. “사물이 생겨남에 반드시 어리므로 몽으로써 이으니, 몽은 몽매함이니 물건이 어린 것이다(物生必蒙, 故受之以蒙, 蒙者蒙也, 物之穉也).”

29) 최재목, 「어둠(蒙)에서 ‘빛(光)’으로의 기회-『擊蒙要訣』의 「革舊習」章, 「持身」章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31집(2014), 6쪽 참조.

30) 『周易』 「說卦傳」 11장. 艮, 爲山, 爲徑路, 爲小石, 爲門闕, 爲果臝, 爲闔寺, 爲指, 爲狗, 爲鼠, 爲黔喙之屬, 其於木也, 爲堅多節.

표6-간괘의 상징 6

☶	산(山)	경로(徑路)	소석(小石)	문궤(門闕)	검궤지속(黔喙之屬)
	산	좁은길	작은돌	문	주둥이가 검은 짐승
	지(指)	구(狗,) 서(鼠)	과라(果臝)	훈사(閹寺)	견다절(堅多節)
	손가락	개, 쥐	나무열매	문지기, 내시	단단하고 마디 많은 나무

## 2. 간괘의 응용

다음은 『주역』 「대상전(大象傳)」의 64괘 가운데 팔괘의 간괘(☶)가 포함된 괘를 모아 해석한 점괘들이다. 멈춤, 그침, 한정 등에 관련된 것만 선택했다.

### 1) 산뢰이(頤, 頤)

산 아래 우레가 치는 것이 이괘(頤卦)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괘상을 살핌으로써, 언어를 신중하게 하고, 음식을 절제한다.<sup>31)</sup>

☶	☶	간(艮)
	☳	진(震)
산뢰이(頤)		

이괘(頤卦)에는 외부의 '간(艮)의 제한'이 부여되고 있다. 동시에 진(震) 역시도 간(艮)의 반대 모습으로, 한계를 정하는 형상이 맺혀진다. 이렇게 해서 언어를 신중하게 하고, 음식을 절제하는 상이 생겨났다. 언어는 「설괘전」의 '성언호간(成言乎艮)'에서 보듯 간괘와 관련이 깊고, 이괘가 음식을 씹는 턱을 뜻하기 때문에 음식의 상징이 있는데, 여기에 간의 절제가 결합하여 이러한 「대상전」의 의미가 성립되었다.

31) 『周易』 「大象傳」, 頤, “山下有雷, 頤. 君子以慎言語, 節飲食.”

## 2) 수산건(蹇, ䷦)

산 위에 물이 있는 것이 건괘(蹇卦)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괘상을 살핌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보고 덕을 닦는다.<sup>32)</sup>

☵ ☵	☶	감(坎)
	☳	간(艮)
수산건(蹇)		

관(觀)의 상획이 3위로 가는 것은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간(艮)은 '구함'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안은 자신이므로, 자신을 돌이켜 구하는 상이 생겨난다.

감(坎)은 직심(直心)이므로 덕(德)이다.<sup>33)</sup> 리(離)의 밝힘과 합해지면, 덕을 밝히는 수신의 행위가 된다.

## 3) 산택손(損, ䷨)

산 아래 연못이 있는 것이 손괘(損卦)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괘상을 살핌으로써, 분노를 가라앉히고 욕심을 막는다.<sup>34)</sup>

☰ ☰	☳	간(艮)
	☶	태(兌)
산택손(損)		

건(乾)은 좋은 괘지만, 지나치게 강건(剛健)하면 강팍(剛復)하게 된다. 이러면 분노를 부른다. 곤(坤)은 좋은 괘지만, 지나치게 유약(柔弱)하면, 인색(吝嗇)하게 된다.<sup>35)</sup> 이러면 욕심이 솟는다.

3-5위의 호체(互體)<sup>36)</sup>로 있는 곤(坤)은 욕심이 치솟을 수 있지만,

32) 『周易』「大象傳」, 蹇. “山上有水, 蹇. 君子以反身修德.”

33) 坎의 괘상은 가운데 陽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直心을 상징한다. 德의 옛 글자는 직심이 결합한 德이다.

34) 『周易』「大象傳」, 損. “山下有澤, 損. 君子以懲忿窒欲.”

35) 『周易』「說卦傳」 12장. “곤은 인색함이다(爲吝嗇).”

36) 주역의 괘상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제일 아래의 효와 제일 위의 효를 빼고 나머지

치솟는 욕심을 손(損)의 간(艮)이 막는다. 곤(坤)의 허한 구멍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욕심의 징후들을 간(艮)이 틀어막는 것이다. 이것이 질욕(窒欲)이다.

#### 4) 뇌산소과(小過, ䷛)

산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소과괘(小過卦)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괘상을 살핌으로써, 행실은 지나칠 정도로 공경하고, 상사에는 지나칠 정도로 슬프게 하며, 쓰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검소하게 한다.<sup>37)</sup>

䷛	☶	진(震)	4위 3위 2위	☱	5위 4위 3위 2위	☷	5위 4위 3위	☶	태(兌)
	☶	간(艮)							
뇌산소과(小過)									

진(震)의 행실과 2-4위에 호체로 있는 손(巽)의 겸양은 행실을 겸손히 하는 것이다. 간(艮)은 죽음과 관련된 일이며, 호괘의 ‘큰 감’은 마음의 고통이 된다. 곤 상사(喪事)에 슬픔을 다하는 상이다.

### III. 산 그림의 상징

#### 1. 산 그림의 상징적 의미

산 그림은 내담자(client)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무의식을 파악하는 투사 그림이다. 산 그림은 투사 그림 검사도구인 풍경구성법(Landscape Montage Technique, LMT)<sup>38)</sup>의 항목에도 구성되어 있다. 산 그림에 대한 상징적 해석은 표7과 같이 정리하였다.

2-5위의 효를 가지고 팔괘를 만든다. 이는 한정된 괘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廖名春 外 지음, 심경호 옮김, 『서론』, 『주역철학사』(예문서원, 1994), 26쪽.

37) 『周易』 『大象傳』, 小過. “山上有雷, 小過. 君子以行過乎恭, 喪過乎哀, 用過乎儉.”

38) 풍경구성법은 10개의 항목(강, 산, 논(밭), 길, 집, 나무, 사람, 꽃, 동물, 돌)을 차례대로 검은색 펜으로 그리는 투사 그림 검사도구이다.

표7-산 그림의 상징적 해석

저자	산 그림의 상징적 해석
차현희(2009) 최외선 외(2009) 최외선 외(2007)	산은 그리는 사람의 주어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극복해야 할 문제의 수를 시사하는 경우도 있다. <sup>39)</sup> 눈앞에 우뚝 서 있거나 앞길을 막고 있는 경우는 어려움이나 장애 등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sup>40)</sup>
카도노 요시히로 (角野善宏, 2004)	“타쿠보쿠(啄木)가 고향의 산을 빌려서 말한 깊은 심정은 헤아릴 수도 없지만 많은 적든 간에 자신의 고향 산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마음 속에 간직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준엄하게 높이 솟아 있어, 무엇이든 지그시 바라보아주는 엄한 아버지 같은 심상이거나, 무엇이든 가슴에 품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산이 나지막하게 있기도 하다. 머리 눈을 머리에 이고 솟아 있는 산은 분명 한 번에 저 산에 오르고 싶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 생의 마지막 도달 목표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눈앞에 버티고 서 있어 앞길을 방해하는 산인 경우, 전도를 가로막는 장애를 의미할 수도 있다. 때문에 산은 그리는 사람에 처해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예견해주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종종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의 수를 시사할 수도 있다.” <sup>41)</sup>

## 2. 산 그림의 사례 응용

이 절에서는 산 그림을 표현한 내담자의 무의식에 어떤 상징이 내재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질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 1)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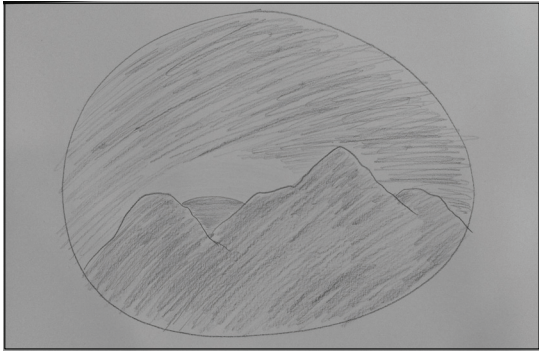
20대 중반 사례 1의 주 호소 문제, 가족 상황, 산 그림 분석에 관한 내용은 표8과 같다.

39) 차현희, 「풍경구성법(LMT: Landscape Montage Technique)에 나타난 알코올 중독자와 일반인의 반응특성 비교연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42쪽; 최외선 외, 『미술치료 기법』(학지사, 2007), 46-47쪽; 최외선 외,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학지사, 2009), 166쪽.

40) 최외선 외, 위의 책(2009), 166쪽

41) 카도노 요시히로(角野善宏) 저, 전영숙·유신옥 공역, 『미술치료에서 본 마음의 세계』(이문출판사, 2008), 251쪽.

표8-사례 1의 그림 분석

사례 1의 그림 분석		
		
주 호소 문제	“군대를 제대했는데,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상황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졸. 해외에서 IT사업 경영 중(13년째). 경제적 여유</li> <li>• 아들에게는 과묵하고 엄격하지만 딸에게는 다정다감함</li> </ul>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졸. 취미-골프, 맛집 탐방, 쇼핑, 마사지</li> <li>• 아들을 남편·애인처럼 생각. 딸에게는 심한 차별적 태도</li> </ul>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졸. 중국 어학연수 8개월 중 포기. 제대한 지 4개월</li> <li>• 작은 체구로 심한 자격지심. 거주지(農村)가 자랑거리</li> </ul>
	여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류대학 재학.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함</li> <li>•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 친구가 많음. 현, 미국 어학연수 중</li> </ul>
산 그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담자는 20여 분간 머뭇거리다 해 지는 산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였다.</li> <li>• 그림을 그리면서 “산이 너무 높네. (한숨 쉬면서)야, 답답하다.”</li> <li>• 산은 내담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극복해야 할 요소를 상징하므로 높은 산은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sup>42)</sup></li> </ul> <p>⇒ 해가 지는 산 그림은 낙담, 좌절, 우울, 포기, 실망, 답답함 등의 부정적 해석이 포함된다. 또한 높은 산은 내담자가 극복하기에 벅차고 힘든 상황임을 상징한다. 해와 산의 공통점은 ‘아버지’의 상징이다. 따라서 사례 1은 첫째, 외국에 있는 아버지 대신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죄책감의 무게가 산의 크기로 묘사되어 답답함으로 드러났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적 의존은 사례 1로 하여금 장남과 아버지의 역할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과 능력 있는 여동생으로 인한 자격지심으로 내재되었다. 현재 무직인 사례 1 그림은 어두워지는 밤이라는 배경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상황이 한숨 나올 정도의 매우 답답한 상황임을 시사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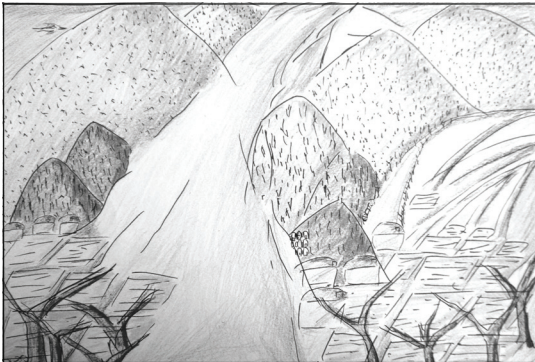
42) 차현희, 앞의 논문(2009), 46쪽.



## 2) 사례 2

30대 초반 사례 2의 주 호소 문제, 가족 상황, 산 그림 분석에 관한 내용은 표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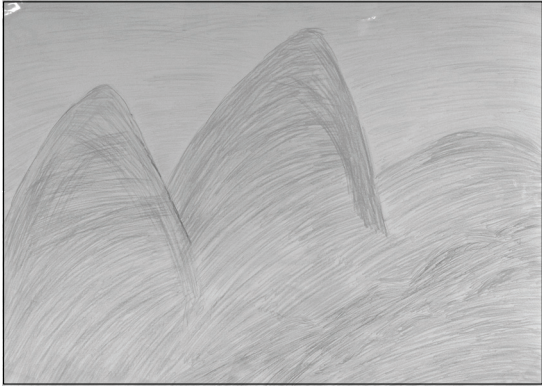
표9-사례 2의 그림 분석

사례 2의 그림 분석	
	
주 호소 문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민입니다.”
가족 상황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 대기업 임원 재직 중. 경제적 여유</li> <li>• 아들에게는 가부장적이지만 딸(누나)에게는 친밀하고 다정함</li> </ul>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졸. 재테크에 관심이 많음</li> <li>• 성격이 활발하고, 친구가 많으며, 아들을 끔찍하게 아낀다</li> </ul>
	누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학위, 유치원 원장. 미혼. 경제적으로 여유 있음</li> <li>•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음</li> </ul>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학위. 무직(졸업 후 아르바이트 3개월 중)</li> <li>• 레스토랑 경영을 꿈꾸고 부모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함</li> </ul>
	여자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학위. 심리상담사</li> <li>• 여유 있는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성장. 사치와 낭비가 심함</li> </ul>
산 그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담자는 화지가 작아서 더 그리지 못했다고 하였다.</li> <li>• 산 그림에 나타난 산의 수는 내담자가 설명한 그림 내용을 기반으로 해석한다. 그림에 표현된 산의 수와 그리지 못한 산의 수도 포함해서 분석한다면, 내담자가 표현하려는 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매우 많다.</li> <li>⇒ 사례 2가 표현하려는 산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는 현실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의 수나 장애물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음을 시사한다.<sup>43)</sup> 따라서 사례 2 그림은 첫째, 미취업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결혼 이후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 미취업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불안한 정서가 매우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li> </ul>

### 3) 사례 3

30대 후반 사례 3의 주 호소 문제, 가족 상황, 산 그림 분석에 관한 내용은 표10과 같다.

표10-사례 3의 그림 분석

사례 3의 그림 분석	
	
주 호소 문제	“매일매일 너무 우울하고 심란해서 죽고 싶어요.”
가족 상황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외과 의사 · 교수. 경제적 여유</li> <li>• 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위치. 권위적. 의사 동생만 존중</li> </ul>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정신과 의사 경영. 경제적 여유</li> <li>• 큰아들을 외면하는 남편 태도에 괴로워하면서도 모친도 무시</li> </ul>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 재학 중.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 여기저기 다니며 명사</li> <li>• 학벌로 인한 집안의 떠돌림. 음식섭취로 스트레스 해소</li> </ul>
	남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류대학 졸업 후 외과 의사. 여의사와 결혼 후, 필리핀 거주</li> <li>• 형과 대화하기를 불편해하며, 무시하고 만남을 꺼려함</li> </ul>
산 그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받으러 올 때마다, “아, 진짜 이번 주 너무 우울해서 힘들어요.”</li> <li>• 산은 주어진 상황과 극복해야 할 문제 수를 의미하므로 피검자가 인지하는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과제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sup>44)</sup> ⇒ 산 그림의 숫자는 극복해야 할 대상의 수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례 3은 첫째,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어려움을 상징한다. 둘째, 지속된 가족의 외면, 발언권 무시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거라는 비합리적 신념이 높은 산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중앙에 큰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산 그림의 크기와 높이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의 무관심과 무시가 사례 3의 만성 우울로 발전시켰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의 산은 3회의 자살을 생각했던 경험과 연결시켜서 무덤의 숫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li> </ul>

43) 차현희, 앞의 논문(2009), 45쪽.

44) 차현희, 앞의 논문(2009), 42-43쪽.

#### IV. 맺음말: 사례 분석의 결론

심리학자 융(C. G. Jung, 1875~1961)은 인간의 무의식을 그림이라는 상상 작업을 통해 상징적 체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우연이라는 현상의 논리를 설명하고자 음양(陰陽)으로 대표되는 『주역』의 논리를 탐구했다. 자연에게 홀수(奇數)와 짝수(偶數)로 대답하도록 구성된 『주역』이 심리적인 내부의 세계와 물리적인 외부의 세계 사이에서 직관적인 상징적 의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up>45)</sup> 이후, 융 학파의 영향을 받은 진 시노다와 아놀드 민텔은 설명하기 힘든 우연을 동시성 원리로 해명해준 『주역』을 활용하여, 심리치료 현장에서 무의식의 상징적 해석을 광의적으로 이해하는 데 반영하고 있다.

이 글은 『주역』의 팔괘를 심리치료 현장에서 활용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자연형상 중에서 산을 대표하는 주역의 간괘와 심리치료의 산 그림에 드러나는 양자의 상징적 상관성에 관한 탐색이었다. 내담자의 산 그림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과 간괘의 상징적 상관성을 접목하면, 아래와 같이 분석,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례 1의 산 그림에 나타난 상징성은 『주역』 「설괘전」 10장에 나타난 팔괘와 가족의 유비관계와 상관관계가 있다. 사례 1의 주 호소 문제는 군대를 제대했지만, 자신의 적성과 하고 싶은 일을 파악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가족 상황과 연관 지어 내린 분석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13년 전부터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사례 1은 성인 남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책임과 의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모델링의 기회를 경험하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하면서 양가감정을 표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의 이중적 태도는 사례 1의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갈등은 타인과 긴밀한 신뢰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확장시켰다. 결국,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사례 1이 신뢰와 불신 사이의 갈등과 힘들면 쉽게 포기하려는 습성을 만들어낸 요인이 된다.<sup>46)</sup> 또한 여동생과

45) 융(Jung)·파울리(W. Pauli) 지음, 이창일 옮김, 앞의 책, 94쪽 참조.

46) 사례 1은 청소년기 공부하는 학원이나 과외를 2개월 이상 지속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중국에서 어학연수 8개월을 다니면서도 여러 번 휴학하였으며, 결국 졸업은 물론 수료

있을 때, 학업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일부러 화를 내거나 욕박지르는 식의 대화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성인남성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남아선호사상 성향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사례 1이 일반적으로 성장하기에 부적합한 성장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사례 1은 산 그림을 보며, 한숨이 나올 정도로 답답하고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례 1의 감정은 가정 안에서의 심리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미숙한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어리석은 태도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어리다’는 ‘어리석다’, ‘어린아이가 가르침을 구한다’, ‘무지하다(童蒙)로 설명되는 간괘의 상징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충 설명하고자 산택손(山澤損, ䷨)괘를 살펴보면, 산(☶) 아래 태(兌, ☱)의 연못이 있는 상징이다. 앞서 손괘의 「대상전」에서 말한 ‘징분질욕(懲忿窒欲)’에서 살펴보았듯이, 손괘는 본래 지천태(地天泰, ䷊)에서 세 번째의 양강(陽剛)을 제일 위로 떨어 올린 것이다. ‘떨다’는 의미의 손(損)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하였다. 그래서 아래의 태(兌)는 분노를 상징하는 건(乾)의 지나치게 강건하고 강박한 성격을 연못의 물로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이고, 호체의 곤(坤, 3-5위)이 상징하는 인색하여 생겨난 치솟는 욕심을 간(艮)이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례 1의 산 그림에 나타난 무의식적 표현에서 분노와 욕심이 잠재된 것이라는 심층적 분석과 연관됨을 시사한다.

둘째, 사례 2의 산 그림에 나타난 상징성은 간의 전형적인 상징인 멍춤과 관련되어 있다. 사례 2의 주 호소 문제는 결혼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미취업 상태에 대해 고민이 있는 경우이다. 이 내담자의 가족 상황을 통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격이 꼼꼼하고 학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누나는 학원 경영을 전문적으로 잘 처리하고 사교적이며, 학업 능력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하다. 하지만 사례 2에게 아버지는 엄격하고 과묵하다. 따라서 사례 2가 쉽게 주눅 들고, 자존감이 낮은 성향으로 성장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 남존여비사상이 있고, 사례 2를 아기처럼 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그가 사회에서 힘들거나

---

도 못한 상태이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하거나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며 모친에게 의지하는 등의 미숙한 대처방식을 선택하는 원인이 된다.<sup>47)</sup> 사치와 낭비가 심한 여자친구와 경제적 빈곤도 갈등의 원인이 되겠지만, 석사학위에 전문직을 겸비한 그녀에게 자격자심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을 그린 그림은 현재 사례 2가 헤쳐 나가야 할 어려움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시사한다.

또한 화지가 작아서 더 그리지 못하고 머물고 있다는 뜻은 간괘의 '멈춤', '그치다'와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 사례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 무직자인 사례 2가 현 상황에 맞춰 무조건 결혼을 강행하기 보다는 산 그림에서 나타난 '멈춤'의 뜻을 파악한다면, 결혼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여 구직한 다음 결혼을 생각했을 때, '멈춤'은 '절도'라는 발전적 성질의 긍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보충 설명하고자 앞선 산뢰이(山雷頤, ䷚)괘를 살펴보면, 산 아래 우레가 치는 이괘의 상은 언어를 신중하게 하고, 음식을 절제한다는 상징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 2의 산 그림에 나타난 무의식적 표현에서 간의 멈춤과 절제라는 심층적 분석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사례 3의 산 그림에 나타난 상징성은 간괘의 '종결'과 '새로운 시작' 등과 연관시켜 확장해 해석할 수 있다.

사례 3의 주 호소 문제인 매일매일 너무 우울하고 항상 심란해서 죽고 싶다는 심리상태를 가족 상황에 연관 지은 분석은 아래와 같다.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외과의사·교수이며, 동일업계에 있는 둘째 아들과는 다정한 관계이다. 어머니도 정신과 의사이면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모두 대학·대학원 동문이다. 사례 3은 지방 4년제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부모의 권유에 떠밀려 간신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3은 어릴 때 총명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조용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는 성격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중학교 때는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어두운 학창 시절을 경험한 원인은 의사로 바쁘게 활동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양육방식 때문이라 진술한다. 그는 사는 게 재미없고 우울하며

47) 사례 2 어머니는 아직까지 식탁 위의 고기반찬은 아들 수저에 올려놓거나,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장소 및 대화 내용 등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조정하고 있다.

심란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성이 생겼다.<sup>48)</sup>

또한 남동생은 활발하고, 일찍 결혼해서 자녀도 있으며, 능력을 인정받고 해외병원으로부터 초청받아 이민을 간 상태다. 이로써 동생에 대한 자격지심도 내재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학창 시절 왕따, 군인 시절 관심사병, 학벌로 인한 가족의 외면과 무관심이라는 성장과정은 세 차례 자살을 결심했던 동기가 된다. 이러한 무의식에 축적된 심리는 크고 높은 3개의 산으로 화지의 중앙에 큰 비중으로 차지한다.

간괘의 동북쪽은 만물의 종결을 뜻하고, 종결은 죽음을 의미하며, 귀신, 묘, 어두움 등으로도 확충하여 해석된다. 그러므로 3개의 산은 3개의 무덤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간괘는 만물이 종결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동북쪽을 상징하므로 긍정적 변환을 기대하는 심리치료가 요구된다.

이를 보충 설명하고자 뇌산소과(雷山小過, ䷛)괘를 살펴보면, 소과괘는 산(☶) 위에 진(震, ䷲)의 우레가 있는 상이다. 간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가운데 형성된 호체의 감(坎, ䷜)괘는 마음의 고통이 뜻하므로 상사(喪事)에 슬픔을 다하는 상이다.<sup>49)</sup> 따라서 사례 3의 산 그림에 나타난 무의식적 표현에서 간의 마침과 죽음 등의 심층적 분석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실제 심리치료 사례를 통하여 『주역』의 간괘 상징의 응용과 심리치료의 산 그림 해석 및 사례 적용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체계의 상징적 상관성을 밝혀보았다.

『주역』은 경박하고 미숙한 사람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유할 줄 알고, 즐기며,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학문이다.<sup>50)</sup> 심리치료의 영역에 『주역』이라는 자각과 성찰이 핵심인 동양철학의 접목은 복잡한 인간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임상 현장에서 더 의미 있고 유용한 결과를

48) 사례 3은 자신이 우울한 이유가 부모의 무관심,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학교 친구들의 왕따와 학교폭력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스스로의 우울함을 합리화하려는 비합리적 신념이라 할 수 있다.

49) 小過卦는 1-2위, 3-4위, 5-6위를 각각 하나의 효로 합해서 본다면 커다란 坎卦를 이루고 있다. 坎은 「설괘전」에 따르면 마음의 고통을 의미한다.

50) 용의 『주역』 「서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창일, 앞의 책, 338쪽 참조.

심도 있게 양산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역』의 간괘와 심리치료의 산 그림의 실증 사례를 분석하여, 그 상징적 상관성을 입증한 것은 동양철학의 현실적 쓰임과 심리치료의 우리 문화적 배경 확장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석진 옮김, 『周易傳義大全』(상하). 대유학당, 2002.
- 金勝東, 『易思想辭典』.釜山大學校出版部, 2006.
- 디어드리 베어(Deirdre Bair) 지음, 정영목 옮김, 『융』. 열린책들, 2008.
- 방인,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 아놀드 민텔(Arnold Mindell) 지음, 한나 정 옮김, 『꿈꾸는 영혼』. 나노미디어, 2006.
- 廖名春 外 지음, 심경호 옮김, 「서론」.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 융(C. G. Jung) 지음,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09.
- \_\_\_\_\_,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인간과 문화』. 『융 기본 저작집』 9책, 솔출판사, 2004.
- 융(C. G. Jung) · 파울리(W. Pauli) 지음, 이창일 옮김, 『자연의 해석과 정신』. 청계, 2002.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0.
- 이창일, 『주역, 인간의 법칙』. 위즈덤하우스, 2011.
- 제인 호프(Jane Hope) 지음, 유기천 옮김, 『영혼의 비밀』. 문학동네, 2002.
- 차마리, 『미술치료의 이해』. BlueLotus출판사, 2012.
- 차현희, 「풍경구성법(LMT: Landscape Montage Technique)에 나타난 알코올 중독자와 일반인의 반응특성 비교연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뇌기능분석을 통한 만다라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뇌파검사와 신경심리검사를 중심으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최외선 외, 『미술치료 기법』. 학지사, 2007.
- \_\_\_\_\_,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학지사, 2009.
- 최재목, 「어둠(蒙)에서 ‘빛(光)’으로의 기획: 『擊蒙要訣』의 「革舊習」章 · 「持身」章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31집, 2014.
- 카도노 요시히로(角野善宏) 저, 전영숙 · 유신욱 공역, 『미술치료에서 본 마음의 세계』. 이문출판사, 2008.
- Shinoda, Jean, *The Tao of Psychology: Synchronicity and Self*. New York: Harper & Row, 1979.
- Nöth, Winfried, *Handbook of Semiotics*. Indiana Univ. Press, 1995.



##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자연형상 중에서 산을 대표하는 주역의 간괘(艮卦)와 심리치료에서 시행하는 산 그림 간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하고, 양자의 통합적 관점에 따른 해석을 이해하고자 했다. 간괘를 선택한 이유는 산(山)을 대표하는 가장 뚜렷한 물상이고, 산 그림의 해석과 공통적인 상징적 의미, 즉 그침(止), 곤란, 어려움(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역』의 원문을 토대로 간괘의 상징적 의미를 더 확장하여, 어리석음, 죽음, 완성, 양육(育) 등을 추출하여 산 그림의 해석을 확장할 수 있게 단서를 마련하고자 했다.

세 가지 산 그림 사례를 간괘의 상징과 함께 해석하였다. 그 결과, 사례 1에서 산 그림은 앞길을 막고 있는 어려움이나 장애물 해석 이외에 ‘어리석다’, ‘어린아이가 가르침을 구한다’, ‘무지하다’로 확장 해석이 가능했다. 사례 2에서 산 그림은 헤쳐 나가야 할 어려움 이외에 ‘멈춤’, ‘절도’, ‘절제’를 상징했다. 사례 3에서 산 그림은 극복해야 할 문제의 수를 함의하고 있다. 여기에 ‘종결’, ‘죽음’, ‘묘’의 더욱 확장된 상징적 의미를 적용한 해석을 해보았다. 이 글의 의의는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동서양의 지식을 통합한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주역과 심리학의 상징적 상관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또한 실제 상담에서 간괘와 산 그림을 적용·분석하여 상징적 상관관계의 현실적 효능 여부를 입증하였다.

투고일 2015. 9. 21.

심사일 2015. 10. 23.

게재 확정일 2015. 12. 2.

주제어(keyword) 『주역』(Zhouyi), 간괘(艮卦, *Gengua*), 심리치료(psychotherapy), 산 그림(draw-mountain), 상징적 상관관계(symbolical correlation)

## Abstracts

### An Inquiry on the Correlativity of the Psychotherapy and the Symbol of Eight Trigram in the Zhouyi: Focusing on the Symbolical Significances of Gengua(艮卦) and Draw-Mountain

**Cha, Hyun-hee**

This article is to comparatively analyse the correlativity of the *Gengua*, which symbolize the mountain of natural figures, in the *Zhouyi* and the Draw-Mountain in psychotherapy, and to understand its results through integral standpoint.

The reason to select the *Gengua* is that it is apparent material phenomena symbolizing the mountain and has the symbolical meaning of cessation, difficulty, predicament, which are common with draw-mountain interpretation.

The article is to amplify the symbolical meaning of *Gengua* based in *Zhouyi* text, and select the meaning, namely stupidity, death, perfection, nurture etc., preparing to extend the draw-mountain interpretation.

Three draw-mountain cases are interpreted with *Gengua* symbol. As a result, draw-mountain in case 1 can be expansively interpreted as children seeks for teaching or be ignorant, in addition to the difficulty or obstacle blocking the way. Draw-mountain in case 2 symbolizes the cessation, self-control, moderation besides winning through difficulties. Draw-mountain in case 3 includes the problem situation to solve. Additionally, extended interpretations are applied it with the symbolic meaning such as end, death and tomb.

The significance of this article is to inquiry into the symbolical correlation both *Zhouyi* and psychotherapy, a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complicated mind of human by the standpoint integrated with east and west knowledge.